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6일(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투자창업과	담 당 자	• 창업기획팀장 김미연 ☎440-3281 • 담당자 정명화 ☎440-32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창업의 꿈 ‘드림업밸리’ , 오염토 정화 후 사업추진

- 청년 창업주택, 창업시설 함께 건설되는 직주일체형 시설 ... 24년7월 준공예정 -
- 착공위한 방음벽 공사 중 오염토 발견, 오염토 처리 후 재개 예정 -

인천광역시는 청년주택 및 청년 창업시설로 용현동에 조성 중인 ‘드림업밸리’ 조성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드림업밸리는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 창업주택과 창업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직주일체형의 창업지원 시설이다.

대지면적 7,617㎡에 창업지원주택 158호와 코워킹스페이스, 사무공간, 스튜디오, 미팅룸 등 창업지원시설(11,042.27㎡) 조성을 위해 총 7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용현동 667번지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사업부지 축소 등의 사유로 664-3번지로 부지를 이전했다. 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설계변경(2021년)과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2021.12.13.) 후

지난 3월 시공사가 선정됐다. 오는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드림업밸리 사업은 청년 창업공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맹꽁이 보호, 공공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인근 입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인근 주민들과 소통과정을 거치며 사업 추진을 계속 추진하던 중 착공 준비단계인 방음벽 공사에서 오염토가 발견됨에 따라 오염토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사업을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토 정화 작업과 관계없는 인근 맹꽁이의 사업부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및 사업 착공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5일(월)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 SK입주민 대표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염토 정화 시까지 사업을 중지하고 맹꽁이 유입방지 펜스 설치 및 오염토 정화에 따른 진행일정 등을 공유함은 물론,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염토 정화는 미추홀구의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시료채취, 정밀조사, 용역, 정화이행 등의 처리절차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드림업밸리 사업’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창업의 메카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오염토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재개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드림업밸리 조감도

